

2주 남은 대입 수시모집 지원 전략

전년 합격선 중요... 논술전형, '수능최저' 적용 파악을

학생부교과전형, 매년 합격선 비슷
면접 유형·일정 미리 확인해야
작년에 비해 수험자 감소 변수

올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 성적 외에 학생부 비교과, 논술, 수능최저학력기준 등 아직 접수가 확정되지 않은 요소를 기준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정해야 하는 만큼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형별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학생부 100%로 선발하므로 고31학기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정해진 만큼 변수가 크지 않아 매년 합격선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므로 학생부교과전형부터 합격 가능한 대학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다.

학생부교과전형 준비의 첫 단계는 목표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신 성적이 관심 대학의 전년도 입시 결과와 비슷하다면 합격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다수 대학이 합격자 성적을 평균점수 기준으로 발표하므로 대학이 발표한 수치보다 실제 커트라인은 좀 더 낮게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형성된다. 다만 최상위권 대학의 경우 합격자들의 수준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합격자 평균과 커트라인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모집 인원의 증감이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모집 인원이 줄어들면 경쟁률과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올해 수도권 대학 중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인원이 증가한 대학은 한양대 예리카(51명), 세종대(45명), 중앙대(29명), 성신여대(17명), 한국외대(15명) 등이고, 감소한 대학은 경기대(-106명), 단국대 죽전캠퍼스(-100명), 홍익대(-92명), 명지대(-87명), 숙명여대(-55명) 등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높을수록 경쟁률과 내신 합격선은 다소 내려간다. 지난해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됐거나 폐지된 경우 경쟁률과 내신 합격선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올해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응시자를 기준으로 전체 수험생이 전년보다 8.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시모집 학생부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난해 입시 결과를 맹신하기보다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 대학과 학과를 찾아야 한다.

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대학은 수능 위주 정시모집 지원 가능 대학보다 상위 대학이나 학과를 지원하는 게 좋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종합평가해 선발하는 경우 전년도 합격자 내신 평균이나 면접 점수 등을 내 성적과 비교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원 가능 대학 선택은 자신이 다니는 고교 선배들의 합격 사례와 비교해봐야 한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지원 학과보다 상위로 지원하는 게 좋다.

면접을 치른다면 면접 유형과 면접 일정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유형의 면접에 강점이 있는지와 관심 대학의 면접 유형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수다. 특히 면접 일정이 겹치는 경우 비교우위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논술전형의 경우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데, 자신이 충족할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하는 대학 위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하다. 실질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0학년도 논술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서울시립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다. 건국대는 지난해까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2020학년도에는 적용하는 반면, 연세대는 수능 최저를 폐지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을수록 이를 충족하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과 합격선이 하락하게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유형과 고사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

메가스터디교육 남윤곤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논술 유형을 찾아내려면 우선 논술은 어느 정도 답안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므로 자신이 어떠한 영역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예컨대 인문계 학생 중 수학에 강점이 있다면 인문사회 및 수리 문항 유형, 영어에 강점이 있다면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유형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수시 논술고사 일정은 크게 수능은 크게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로 나뉜다. 수능 이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은 가톨릭대(의예 제외), 경기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홍익대 등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내가 만든 앱 전세계로” 국내외 고교생 한자리

‘제9회 이아이콘 세계대회’

교육부는 국내외 고교생들이 팀을 이뤄 교육용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제9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를 18일~24일 부산 한화리조트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해외 12개국 고교생 42명과 교사 19명, 우리나라 고교생 42명과 교사 21명이 참가해 국제연합(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주제로 앱을 개발한다.

대회는 국내 유일의 다국적 팀 소프

트웨어대회로 국내외 해외 학생이 각각 2명씩 1개 팀을 구성하고 각 팀에 국내외 교사가 2명씩 참여한다.

부산대, 가천대, 단국대 관련 분야 전공 학생 21명이 기술 멘토로 참가해 대회 기간 중 학생들을 공동 지도한다.

지난해 대회에서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한 과학 학습 앱을 개발한 한국 에니메이션고와 미국 와이파후 칼라니고 공동 팀이 1등을 수상했다.

출품작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등에 무료로 배포되고 전 세계 학교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된다. /한용수 기자

국민대-삼성SDS, 전자서명 해킹 막는다

CHES 발표, TCHES 게재
“다양한 방어기법 확보할 것”

국민대학교와 삼성SDS 연구진이 전자서명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민대학교는 정보보안암호수학과 한동국 교수 연구팀이 삼성SDS 보안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부채널 공격’을 주제로 한 논문을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CHES(Cryptographic Hardware and Embedded Systems)에 발표하고, TCHES(Transactions of CHES) 저널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CHES는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고 권위의 암호 공학 국제학회다.

부채널 공격이란 전자여권, 자동차



한동국 국민대 교수 조지훈 삼성SDS 팀장

스마트키와 같은 전자기기에서 암호가 동작하는 동안의 전력량과 전자파 등을 분석해 암호를 해독하는 물리적 기법을 말한다.

미국 국립기술표준원(NIST)은 2016년부터 양자 컴퓨팅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암호를 뜻하는 양자내성암호(Post-Quantum Cryptography)의 표준화 공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대 한동국 교수 연구팀은 NIS

T의 공모 후보에 오른 일부 암호 체계가 부채널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따른 안전한 알고리즘 개발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삼성SDS 보안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이뤄낸 성과로 눈길을 끈다. 삼성SDS는 지난해 기존 부채널 공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확보한 바 있으며, 올해는 양자내성암호에 대한 부채널 공격 기법과 대응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국민대 한동국 교수와 삼성SDS 조지훈 보안연구팀장은 “5G시대에는 IoT의 본격적인 확산으로 부채널 공격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대와 삼성SDS의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부채널 공격에 대한 다양한 방어기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대학가 소식

성신여대
천안삼거리휴게소
독립미술관 개관

성신여대 미술대학 조소과가 ‘공공 미술 열린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참여한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휴게소 독립미술관’이 지난 14일 공식 개관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안삼거리휴게소 독립미술관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예술작품으로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취지로 조성됐으며, 성신여대를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대전MBC, 보림로지스틱스 천안삼거리휴게소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전국 고등학생 대상
대학전공 체험 행사

세종대학교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년 세종대학교 전공 탐색의 날’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공 탐색의 날은 고등학생이 대학의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로 탐색 및 진학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물리천문학과, 컴퓨터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법학부 등 총 22개 전공이 참여했다.

/한용수 기자

“학문 경계 허문다”... KAIST 융합기초학부 내년부터 운영

학생 스스로 선택한 학점으로 학위

KAIST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해 취득한 학점에 따라 학위를 주는 과정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

KAIST는 지난 2017년 신성철 총장 취임 후 추진해 온 융합기초학부 설치에 대해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융합기초학부 전공 학생

은 올해 11월 학부 새내기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융합기초학부는 기존 학과(전공)가 세부 전공을 정해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을 벗어나,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따라 개인맞춤형으로 전공 분야를 구성해 능동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수강해 136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교과과정에 따라

공학사, 이학사, 융합공학사, 융합이학사 등 4개 학위 중 하나를 받는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전공과 학과를 정한 뒤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융합기초학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커리큘럼은 융합기초 교과목 6개, 중점분야별 전문 교과목 8개, AI 교육을 바탕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등 8개 중점분야 30여개 전공 교과목으로 구성된다.

/한용수 기자